

“용서하고 사랑하라”

요한복음 8:1-11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는 상상을 초월하는 예수님의 지혜가 나타납니다. 현장에서 간음하다 잡혀와 돌에 맞아 죽을 여인을 향해 돌을 들고 던지려는 군중들에게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이 내용은 지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을 향한 외침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예수님의 외침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의 이면에는 교활한 음모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옭무에 빠지게 해서 고발할 조건을 얻기 위해서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간음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요 8:3-5)

모세가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라며 진퇴양난의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가 반드시 잡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인간에게 율법을 주신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습니까?

율법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주셨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율법교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병 고쳐 주는 것이 합당하나 아니하냐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이라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하시니 그들이 이에 대하여 대답하지 못하니라 (눅 14:3-6)

그런데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람을 살리기보다 죽이는데 사용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수술용 칼을 주셨는데 바리새인들은 그 칼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간음한 여인을 죽이려고 합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도 하나님을 말씀을 사람을 살리는데 사용하지 않고 죽이는데 사용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가 예수를 잘 믿는다고 말합니다. 자기가 대단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자기 집안은 빼대 있는 집안이라고 자랑합니다. 말씀은 받은 가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 옆에서 구원받은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밤낮으로 다니면서 누구를 정죄하고 누구를 찌르고 누구를 죄인이라고 하고 누구를 폭로하고 다니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 아니라 바리새인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말씀을 주신 이유는 많은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그 말씀을 통해서 살리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정당한 사람인가 저들은 얼마나 악한 사람인가를 증거하는

데 사용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영혼을 살리고 우리에게 주신 기도의 능력을 통해서 영혼을 살리고 모든 열심과 눈물로 영혼을 살려야 할 것입니다. 영혼 살리는데 집중하는 사람은 영적 권태나 시험이 없습니다. 자기에게 자꾸만 맞추면 잘못하면 바리새인과 같이 남을 판단하게 되고 부족한 것만 눈에 보여 부정적이 됩니다.

우리교회에 꿈이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에서 포기한 사람을 복음으로 살리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언젠가 우리교회 파송 선교사도 홀선교사와 같은 사람들이 나오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온 열방에 무엇을 위해 사는 지 모르고 지옥을 향해 달라가고 있는 수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교회입니다. 마약에 빠진 사람들, 가정이 파괴된 사람들, 향락에 빠진 사람들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품어 변화시키는 교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스스로 밝히실 때 하신 말씀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눅 19:10)

세상에 잃어버린 자들을 찾아 구원케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고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불쌍한 죄인들을 정죄의 대상이 아니라 구원의 대상으로 삼아 말씀으로 건져 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똑 같은 죄인으로 보신다

예수께서는 바리새인들이 이런 질문을 할 때 손가락으로 땅에 글을 쓰셨습니다.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요 8:6)

7 절에 ‘**너희 중에 죄 없는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또 엎드려서 땅에 글을 쓰십니다. 간음한 여인만 죄인이 아니라 다 똑 같이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다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제일 먼저 들어야 할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나’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의 자리에 나아가야 할 자신이 오히려 다른 사람을 정죄한다는 것은 자기 주제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스스로가 자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외식하는 자여 먼저 네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마 7:5)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은혜 받는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죄악을 바라볼 때 '아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많은 죄를 지었지' 다른 사람의 불순종을 보면서 '나도 과거에 저렇게 하나님을 떠나서 불순종했지'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진정으로 은혜 받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용서의 하나님

예수님께서 간음한 여인을 보시며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요 8:10)

여기에서 두단어가 나오는데 고소와 정죄입니다. 마귀는 자꾸 우리를 고발하고 정죄합니다. 너는 살 가치가 없다 죄를 짓고 어떻게 뻔뻔스럽게 살고 있니 차라리 죽어라. 인간이 가장 힘든 것이 죄책감입니다. 죄책감에 시달리면 밤에 잠을 못 잡니다. 그리고 우울증에 걸려 헤어나지 못하게 합니다. 이것이 곧 정죄입니다. 고소와 고발 그리고 정죄가 마귀의 특기입니다.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요 8:11)

공포에 떨고 있던 이 여인이 정신을 차려 주위를 보니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라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이 용서하신 것입니다. 인간은 용서할 수 없지만 예수님은 용서하실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롬 8:1-2)

예수님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여인의 처지를 이해했습니다. 예수님은 죄는 미워하셨지만 인간의 연약함을 아시고 실수하고 죄지을 수밖에 없는 것을 인정하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여인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기막힌 처지에 빠진 여인을 정죄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모두도 과거로 인해 찢든 인생을 살아가는 안됩니다. 그리스도안에서 모두가 용서를 받고 자유자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눔의 시간

1. 율법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른 사람을 살린 경험이 있다면 서로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2. 우리 교회 꿈, 예수님의 꿈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옳은 곳으로 이끈 것에 있습니다. 이 꿈이 혹 나의 꿈과 같은 꿈인가요? 이러한 꿈을 이뤄가기 위해 내가 노력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3. 예수님은 용서하라고 사랑하라고 명령하십니다. 내가 용서해야 할 사람, 내가 사랑해야 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서로 고백하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첫째로, 용서를 생활화해야 합니다.

예수께서는 무서운 심리적 암인 '미움'을 잘 알고 계시기에 무한정으로 남을 용서하고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상대방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 자신을 사랑하는 최선의 방법이 되기 때문입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롬 12:19)

내 마음속의 원한이나 미움은 상대방이 아닌 바로 나 자신을 죽이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 매일 같이 용서하고 용서받고 살아야 됩니다.

둘째로, 용서한 것은 잊어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너희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히 8:12)

우리가 회개하고 보혈로 씻으면 하나님은 다시 기억도 안 한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용서받은 죄를 기억나게 하는 것은 마귀의 일이고, 성령의 일은 아닌 것입니다. 용서받은 죄를 자꾸 기억나게 하고 다시 마음에 정죄하는 것은 사탄이 와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용서한 죄를 다시 기억나게 하거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그 사탄을 물리치게 되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요일 4:7-8)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만물을 지었기 때문에 만물이 다 사랑을 그리워하고 사랑을 갈급하게 찾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롬 8:38-39)

어마어마한 끈질긴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